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찾아서

조 동 일*

머리말

탐라국의 역사는 망각되었다. 식민지사관 극복을 선도해 많은 호응을 얻은 한국사 개설서의 대표작에서, 탐라는 언급의 대상조차 되지 않다가 원나라가 탐라총관부를 두었다고 할 때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¹⁾ 그것은 식민지사관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라·고구려·백제와 함께 가야의 역사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탐라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 탐라는 대등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역사를 이루는 실체에 등급이 있다고 보고, 등급에 따라서 자리 매김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탐라국의 역사가 망각된 것은 우연할 실수가 아니다. 근대민족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사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났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민족국가의 지배자가 된 다수민의 역사는 최대한 찬양하고, 그 내부에 포함된 이질적인 소수집단의 역사는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근대의 역사관이 세계 전체에서 일제히 행세한다.²⁾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국사를 넘어선 역사 이해의 열린 시야”, 『인문학문의 사명』(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했다.
- 2) 중국이 南詔를 위시한 여러 이민족의 국가, 일본이 아이누와 유구, 월남이 참파, 타이가 侬族, 미얀마가 카렌, 이라크가 쿠르드, 프랑스가 브레타뉴나 프로방스, 스페인이 카타로니아나 바스크, 영국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해온 것이 그 때문이다.

이제는 그런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 자기네 민족국가는 단일체라고 자랑하는 거짓 진술을 그만두고 실제로는 다원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족국가 형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떤 집단의 역사라도 대등한 의의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는 예외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³⁾

강대한 민족국가에 대한 신화적 기대를 버리고, 어느 소수민족이나 소수집단의 역사라도 모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근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의식전환의 소중한 과제이다. 다원성을 인정해야 평등이 보장되고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도 거기 있다. 국가는 그 하위의 지역공동체, 그 상위의 국제사회 사이에 있는 중간 크기의 조직임을 인정하고 다른 둘에 대해서 배타적인 우위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앞두고 남북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데 그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민족이 단일화되었다는 이유에서 과거 역사의 복합적인 전개 과정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민족은 획일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한다면 충돌이 격심해지거나 하고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일국가는 다원체로 구성될 때에만 성립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제 다원적인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학문을 해야 한다.

그 작업을 탐라국 역사를 되찾는 데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역사 이해의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면서, 제주도민의 주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제주학회가 학풍 혁신운동을 주도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란다. 동참의 기회를 얻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3) 소수민족의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유엔에서 요청했을 때 자기 나라는 단일민족국가여서 소수민족이 없다고 회신한 일본의 처사를 죄가 없는 쪽에서나 비난할 수 있다.

서사시의 변천과정

탐라국의 역사를 되찾자고 하면 자료 부족부터 탓한다. 문헌 자료가 얼마 되지 않으니 역사를 복원할 길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조선의 역사는 문헌 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둬 평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고학자료를 활용하면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고조선 연구에서 거둬 확인한다. 탐라국 연구는 그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문헌자료, 고고학자료와 함께 구비전승자료가 또한 소중하다. 구비전승자료는 탐라국의 고장 제주도에 아주 풍부하다. 구비전승자료를 역사연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근대사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긴요한 과제이다. 근대의 민족국가사관에서 존재조차 무시해온 많은 집단은 문헌자료를 남기지 못하고, 고고학자료의 조사도 부진한 것이 역사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빌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곳일수록 구비전승자료는 풍부하다. 제주도도 바로 그런 곳이다.

구비전승자료를 증거로 삼아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개척해야 특정 지역 역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시정할 수 있다. 차등의 역사관을 대등의 역사관으로 바꾸어놓아 세계사 이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작업을 제주도에서 시작하자. 제주도의 구비전승 가운데 서사무가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최상의 자료이다.

제주도의 서사무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구비서사시가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를 잃지 않고 생생하게 구전되고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제주도의 서사무가에서 출발해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자료로 나아가고, 거기서 다시 세계 전체로 논의를 확대하면서, 구비서사시의 변천을 밝혀 세계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⁴⁾ 제주도의 자료에서 먼저 찾아내고, 동아시아를 거쳐 세계 전체로 나아가면

4)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에서 그 작업을 했다. 그 책에서 다른 내용을 간추려 이용하면서 논의를 확대한다.

서 보편성이 확인된 구비서사시의 유형을 들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제주도 서사무가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신령서사시

신앙서사시: 서귀포본향당본풀이

창세서사시: 천지왕본풀이

영웅서사시

여성영웅서사시: 할망본풀이

남성영웅서사시: 깨내당본풀이

범인서사시

신앙비판서사시: 차사본풀이

생활서사시: 이공본풀이

이 가운데 ‘신앙서사시’는 원시서사시이다. 바람과 수렵을 관장하는 신이 한라산에 좌정하고 사냥꾼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한 것이 〈서귀포본향당본풀이〉이다. ‘창세서사시’는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서사시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가 생긴 내력을 설명하고 천체의 이변을 바로잡는 능력을 가진 영웅의 활약에 대해 말한 것이 그 단계 사제자의 자기 과시이다.

고대서사시인 ‘영웅서사시’는 ‘여성영웅서사시’에서 시작되었다가 ‘남성영웅서사시’로 바뀌었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할망본풀이〉에서 보이는 버림받은 영웅의 시련이 남성을 등장시킨 〈김녕깨내깃당본풀이〉에서 더욱 확대되어 있다. 시련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영웅이 통치자가 그런 노래를 불러 자기를 칭송하게 했다.

‘범인서사시’는 중세 이후의 서사시이다. 그것들은 당풀이가 아닌 일반본풀이이다. 신은 뒤로 물러나고 사람 중심의 사고방식이 확대된

5) ‘범인서사시’에 ‘성자서사시’라는 것이 하나 더 있으나 제주도에는 적절한 예가 없어 함께 다루지 않는다.

변화를 나타낸다. '신앙비판서사시'인 <차사본풀이>에서는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염라대왕을 사람의 용기와 지혜로 제압했다고 한다. '생활서사시' 가운데 하나인 <세경본풀이>는 남녀의 간절한 애정을 노래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원시,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 중세 이후를 경험했다는 증거이다. 어디서나 있는 역사의 보편적 과정을 차례대로 겪었으므로, 제주도의 역사는 특수하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제주도에서 확인한 사실이 본토에서 전개된 역사, 아시아 다른 민족 또는 세계 전체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된다.

그러면서 서사무가 각 유형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본토의 자료와 비교하면, 특수성에 대한 인식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앙서사시'에서 '생활서사시'까지를 제주도에서처럼 구비하고 있는 다른 곳의 사례와의 비교가 또한 필요하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전환할 때 단절이나 비약이 보이는 것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⁶⁾

'창세서사시'의 천지왕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의 여성과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영웅서사시'의 남녀는 각기 땅에서 솟아나고 바다를 건너와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주인공이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웅서사시'에서만 보인다. 적대자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해 고대국가를 창건한 영웅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 찬양했다고 생각된다.

중세서사시인 '범인서사시'가 나타내는 사고방식은 그 전대의 서사시와 많이 다르지만, 사건전개에서는 기존의 틀을 이었다. <차사본풀이>에서 말한 시련과 여행은 '영웅서사시'의 설정을 이용했다고 할

6)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에서 밝혀 논한 바와 같이, 그런 특징은 제주도의 자료를 아이누민족, 중국 서남부 소수민족군, 필리핀 등지의 전승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확인된다.

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창세서사시'에서 보이는 하늘에서 하강한 남성과 지상 여성의 결연을 재현했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때에는 새로운 주민의 이주가 없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서사시의 유형 가운데 '영웅서사시'가 탐라국의 건국서사시일 수 있다. '신앙서사시'는 그 이전 국가가 성립되기 전 단계의 서사시이다. '범인서사시'는 그 이후 탐라국이 망하고 제주도가 본토에 복속되었을 때 이루어진 서사시이다. 탐라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영웅서사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문헌자료와 구전자료의 비교고찰

1451년(문종 1년)에 완성된 『高麗史』 권57 志 제11 지리2에 실려 있는 다음 기사는 탐라국의 유래를 말해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건국 시조 셋의 출현과 혼인에 관한 서술이 사실이라기보다 신화라고 해야 하겠으므로 <삼성신화>라고 일컬어진다.⁷⁾ 앞으로의 논의에서 소중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어 전문 인용한다.

탐라현은 전라도 남해 가운데 있다. 그곳 古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태초에는 사람도 산물도 없었다.⁸⁾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났다. (그 주산 북쪽 기슭에 구멍이 있어 毛興이라고 하는 곳이 그 땅이다.) 맏이는 양을나라고 하고, 둘째는 고을나라고 하고, 셋째는 부을나라고 했다.

7) 전경수, 『한국문화론』(일지사, 1994)에서는 <삼성신화>라는 말은 식민지시대의 용어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말 이어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해의 내용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8) 원문의 “人物”을 잘 난 사람을 뜻하는 오늘날의 말 “인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人物”은 “人+物”이며, “인”은 “사람”을, “물”은 “산물”을 뜻한다고 보아 마땅하다. 말, 소, 곡식 같은 사람이 길러내는 산물도 처음에는 없다가 중간에 생겨났다고 말하려고 “人物”이라는 복합어를 썼다고 생각된다.

세 사람은 황량하고 궁벽한 곳에서 사냥을 해서, 가죽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 어느날 자주색 흙으로 봉한 목함 하나가 바다에 떠서 동해가에 이르렀거늘, 가서 열어보니 목함 안에 석함이 있었다. 붉은 띠를 띠고 자주색 옷을 입은 사자가 따라왔다. 석함을 열자, 푸른 색 옷을 입은 처녀 셋, 망아지, 송아지, 오곡의 씨앗이 나타났다. 그러자 말하기를, “나는 일본국 사자입니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따님을 두었습니다. ‘서해 가운데 산에서 神子 셋이 내려와 장차 개국을 하려는데 배필이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따님을 모시고 오게 했습니다. 부디 배필로 삼아 큰일을 이루소서.” 사자는 문득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 순서대로 세 여자에게 장가들어, 샘이 달고 땅이 기름진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점을 쳐 집터를 정했다. 양을나가 사는 곳을 첫째 터전, 고을나가 사는 곳을 둘째 터전, 부을나가 사는 곳을 셋째 터전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오곡의 씨를 뿌리고, 망아지와 송아지를 길러, 살림이 날마다 더욱 풍성해졌다.⁹⁾

이런 내용의 〈삼성신화〉는 공연히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랜 전승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구전에서 비교해 고찰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 당연하다. 〈삼성신화〉가 당본풀이 서사무가와 유사하다는 것은 거듭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다.¹⁰⁾ 둘 사이의 관련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해명하는 작업도 상당한 정도 진전되었다.

9) 원문을 들면 “耽羅縣 在全羅道南海中 其古記云 太初無人物 三神人從之聳出 (其主山北麓 有穴曰毛興 是此地也) 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狩獵荒僻 皮衣食肉 一日 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 就而開之 函內 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 出現青衣處女三及諸駒犢五穀種 乃曰 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 云西海中嶽 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命臣 侍三女以來爾 宜作配 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 以年次 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居所 曰第一都 高乙那居所 曰第二都 夫乙那居所 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 駒犢 日就富庶”라고 했다.

10)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장, 1992)

〈삼성신화〉는 원래 지금의 제단에 있던 곳의 廣壤堂에서 굿을 하면서 부르는 서사무가였다고 보고, 1526년(중종 21년)에 제주목사 李壽童이 단을 쌓고 자손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기록이 그 증거일 수 있다고 한 것은 타당한 추론이다.¹¹⁾ 위의 자료에서 말한 “그곳 古記”는 『고려사』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梁誠之 가문에서 간직하던 양씨족보였다고 추정하고, 그래서 양을나를 고을나보다 앞세웠다고 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기록되어 필사본으로 전해졌을 그 족보에서 서사무가의 내용을 한문으로 옮겼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어떤 서사무가가 〈삼성신화〉로 기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¹²⁾ 〈삼성신화〉의 원형인 서사무가를 〈삼성본풀이〉이라고 한다면, 〈삼성본풀이〉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이 바로 탐라국 건국서사시였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는 여기서 처음 시도한다.

당본풀이인 서사무가를 이루는 단락은 다음과 같다.¹³⁾ “신으로 좌정했다”는 것은 어느 경우나 공통되게 나타나 있는 단락이므로 별도로 들지 않는다.

(가) 땅에서 솟아나다

(나) 바다를 건너오다

11) 장주근, “구전설화의 문헌설화화 과정”, 『한국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집문당, 1995)에서 선도한 작업이다.

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인 14(1994)에서는 〈삼성신화의 종합적 검토〉라는 특집을 마련하고, 장주근 외 3의 논문, 종합토론, 그리고 허춘의 “삼성신화연구: 성과와 과제”를 수록했다. 그런데 종합토론이나 허춘의 정리를 이용해 점검해보아도, 삼성신화 기록과 본풀이 전승을 연결시켜 탐라국 고대서사시의 모습을 찾아내고자 하는 이 논문의 작업을 이미 시도한 기존 업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13) 장주근, 『제주도 당신자료의 구조와 의미』, 같은 책에서 제시한 단락을 좀더 세분했다.

- (다) 배필을 만나 혼인하다
- (라) 부부가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 (마) 부모가 자식을 버리다
- (바) 버림받은 자식이 시련을 투쟁으로 극복하다
- (사) 버림받은 자식 돌아오다

이들 단락이 당본풀이 서사무가에 나타나 있는 양상을 정리하고 본보기를 들기로 한다.¹⁴⁾ (가)형에는 〈장달리본향본풀이〉, (가)(나)형에는 〈김녕큰당본향본풀이〉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단순형이다. (가)(나)(다)(라)형이 〈삼성신화〉와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中间的 일부 단락을 건너뛰고 (가)(마)(사)형인 것도 있으며, 〈할망본풀이〉가¹⁵⁾ 그런 예이다. (가)(나)(다)(라)(마)(바)(사)형이 완성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천자또마누라본〉¹⁶⁾ · 〈김녕캐내깃당본풀이〉 · 〈송당본향당본풀이〉가 그런 것이다.

서사무가에 〈삼성신화〉와 같은 (가)(나)(다)(라)형이 없다는 사실은 〈삼성본풀이〉를 찾는 작업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 볼 수 있는 서사무가 가운데 어느 것이 〈삼성본풀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다. 〈삼성본풀이〉는 이미 없어졌는가? 그렇다면 힘든 작업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다. (가)(나)(다)(라)(마)(바)(사)로 이루어진 전편 가운데 (라)는 〈삼성신화〉와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 거기까지 잘라 기록한 것이 〈삼성신화〉라는 할 수 있다. 그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추정이 타당하게 된다.

(가)(나)(다)(라)(마)(바)(사)형이라고 든 것들 가운데 〈천자또마누라본〉은 (가)(나)(다)(라)까지가 자세하고 (마)(바)(사)는 소략하므로 〈삼성신화〉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둘 사이의 비교고찰을

14) 장주근, 위의 글, 146-160면에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거기 없는 것은 출처를 별도로 밝힌다.

1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08-116면 소재본

16) 같은 책, 591-596면 소재본

통해 <삼성본풀이>의 모습을 찾기로 한다. (마) 이하의 의미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시 논한다.

<삼성신화>에서는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 셋을 들었는데, <천자또마누라본>에서는 ‘상당’ · ‘중당’ · ‘하당’ 셋을 들었다. <천자또마누라본>에서는 셋의 위계질서를 말하는 데 그치고, <삼성신화>에서는 성을 들었다. 유교문화가 들어가기 전까지 제주도 사람은 성이 없었을 것이다. 건국의 시조에게 성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朱蒙’이나 ‘赫居世’도 원래부터 고씨이고, 박씨였던 것은 아니다.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는 성을 사용하는 유교적 관습을 받아들인 뒤에 소급해서 만든 호칭이었을 것이다. <천자또마누라본>에서 셋을 ‘상당’ · ‘중당’ · ‘하당’ 이라고 하고, 그곳의 신들을 각기 성은 없이 이름만 든 것이 원형이다. <삼성본풀이>도 그랬으리라고 추정된다.

<삼성신화>에서는 셋의 출현과 결혼을 한꺼번에 이야기했으나, <천자또마누라본>에서는 하나씩 별도로 다루었다. 셋 가운데 하나인 ‘하당’의 ‘소로소천국’이 ‘백주또’와 부부가 된 내력이 자세하다. ‘상당’ · ‘중당’ · ‘하당’이 셋이면서 각기 별개의 것이듯이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도 각기 숭앙될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보아 마땅하다. 서로 경쟁하기도 했을 것이다. <삼성신화>의 기록에 경쟁이 전혀 배제되고 화합만 나타나 있는 것은 셋의 후손들이 후대에 가진 소망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로 부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내용을 지니기도 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갈등을 나타냈을 것이다.

<삼성신화>에서는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만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고, 그 배필이 되는 여자들의 출생에 관해서는 말이 없다. 그런데 <천자또마누라본>에서는 남자인 ‘소로소천국’은 ‘제주 절도섬’에서 솟아나고, 여자인 ‘백주또’는 ‘강남천자국 백모래밭’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원래는 바다 건너 있는 크고 좋은 나라라고 하던 곳을 유교문화를 받아들인 뒤에 ‘강남천자국’이라고 바꾸었을 것이다.

땅에서 솟아오른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져 신으로 받들 만하다는 뜻이다. <천자또마누라본>에서는 남녀가 다 그렇다고 하면서, 여자가 솟아난 곳은 크고 좋은 나라이고, 남자가 태어난 곳은 절해도도에 지나지 않는 제주도라고 해서 여자를 우위에 두었다. <천자또마누라본>이라는 명칭도 여자를 주역으로 해서 붙인 것이다. <삼성신화>에서 남자만 제주도에서 솟아났다고 하면서 남녀를 차별하고, 여자 쪽은 이름도 없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한 것은 후대의 변화이다.

여자가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것이 오랜 형태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가)(마)(사)형의 본보기로 든 <할망본풀이>는 땅에서 솟아난 여자를 부모가 무쇠상자에 넣어 멀리 떠내려보냈는데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 '여성영웅서사시'이다. 그쪽에는 남녀의 만남이 없다.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다)의 삼화를 지닌 본풀이에서는 남녀가 다 같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다른 곳에서 솟아난 여자가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 솟아난 남자와 부부가 되었으니 두 곳 가운데 제주도가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지만, 다른 곳이 더 크고 좋은 나라이고 거기서 가져온 농사 기술이 제주도에 하고 있는 수렵보다 우월한 기술이다.

<삼성신화>에서도 출신이 다른 남녀의 결합으로 두 가지 생업을 다 하게 되었다고 한 것은 여러 본풀이에서와 다르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 쪽은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지 않아 도입된 기술의 우위만 인정하고, 그 기술을 제공한 곳이 크고 훌륭한 나라라고는 하지 않았다. '강남천자국'을 '일본'이라고 해서 환상을 배제했다. 그러다가 『고려사』보다 후대에 이루어진 다른 기록에서는 그 곳이 '碧浪國' 또는 '東海碧浪國'이라고 해서 바다 건너 있는 어떤 나라라고만 알고 있도록 했다.¹⁷⁾

다른 곳의 여자가 제주도로 와서 배필을 구한 것이 <천자또마누라

17) 『瀛洲誌』, 『耽羅紀年』 같은 데서 그렇게 기록했다. 현용준, "삼성신화연구",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에서는 '碧浪'이 바다를 뜻하는 제주도 말 '바'의 한자 표기라고 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에서는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했다. 열 다섯이 되었을 때 스스로 천기를 보니 제주도 배필이 있어 제주도로 왔다. 땅에서 솟아났으니 그럴 수 있다. 일본국 공주라고 <삼성신화>의 세 여자는 그럴 수 없었다. 시키는 사람이 있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일본 국왕이 사자에게 명해 딸들을 데리고 가서 제주도에 출현한 세 ‘神子’의 배필이 되게 하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사자는 임무를 마치고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고 해서 신통력이 있음을 말해주었으나, 세 공주는 평범한 여자이기만 하다. 남자만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남성 우위는 <삼성본풀이>에는 없었으며 <삼성신화>를 기록할 때 비로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영웅서사시’가 ‘남성영웅서사시’로 바뀐 것은 자연적인 추세이다. 위에서 든 본보기 가운데 주인공이 여성인 것은 <김녕큰당본향본풀이>와 <할망본풀이>뿐이다. 여주인공이 <할망본풀이>에서는 제주도에 솟아나고, <김녕큰당본향본풀이>에서는 다른 곳에서 솟아나서 제주도로 왔다. 앞의 것에서는 제주도의 주인이던 여자가 뒤의 것에서는 외래자로 바뀌었다. 여자가 외래자라면 주인인 남자가 있어야 한다. <종달리본향본풀이>에서는 남자가 제주도에 솟아났다. <천자또마누라본>과 <김녕케내깃당본풀이>에서는 제주도에 솟아난 남자와 다른 데서 솟아나서 제주도로 온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었다.

<김녕케내깃당본풀이>에서 펼쳐지는 자식대의 이야기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한다. <할망본풀이>에서는 여자의 시련이었던 것을 남자의 시련으로 해서 더욱 격렬하게 전개하고 자세하게 다루었다. 그런 내용의 ‘여성영웅서사시’는 희귀하고, ‘남성영웅서사시’는 많이 있다. 남성이 서사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영웅서사시 변모의 당연한 과정이다.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에 종교적인 능력을 가진 정치지도자는 여성일 수 있으나, 고대에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창건하는 영웅은 남성이다.¹⁸⁾

18) <할망본풀이>는 당본풀이가 아닌 일반본풀이로 전승되고,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점에서 창세서사시와 같다. 창세서사시가 전승되면

버림받은 자식의 투쟁과 승리를 다룬 (마)(바)(사)(아)의 단락은 <삼성신화>에는 없는 것이다. <삼성신화>는 한 대로 그친 이야기는 (마)(바)(사)(아)까지 갖춘 <천자또마누라본> <김녕케내깃당본풀이>, <송당본향당본풀이> 같은 것들은 두 대에 걸쳐 전개된다. <삼성신화>로 기록된 <삼성본풀이>는 한 대로 끝났던지 두 대까지 이어졌던지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마)(바)(사)(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마)(바)(사)(아)는 정치적 지배자로 등장한 남성영웅을 칭송한 내용이다. 어려서 버림받아 죽음의 고비를 겪고 적대자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은 ‘영웅의 일생’을 갖춘 고대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¹⁹⁾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되돌아오자 아버지는 두려워 도망치고 아들이 아버지의 영역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다.²⁰⁾

그런 영웅이라야 권력을 장악해 나라를 세우는 위업을 달성한다. 탐라국은 <삼성신화> 말미에서 묘사한 것처럼 평화롭게 농사를 짓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건국의 영웅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을 벌인 곳이다. 건국서사시가 <삼성신화>처럼 끝났을 수 없다. 원래의 <삼성본풀이>는 부모대의 결합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아들 대에

서 그 주인공이 세상에 태어나자 바로 시련을 겪는 여성영웅으로 바뀌어 영웅서사시의 첫 번째 유형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져 여성영웅서사시가 튼튼하게 자리 잡기 전에 남성영웅서사시가 등장한 탓에 밀려난 여성영웅서사시가 중세의 도전을 받아 더욱 위축되어 온전하지 않은 형태로 희귀하게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주인공이 패배하게 하는 데 석가여래가 작용한 것은 중세의 도전이 미친 구체적인 증거이다.

- 19) 朱蒙과 脫解, 아이누의 포이야운페(Poiaunpe), 서아프리카 말리의 손자타(Sonjata), 중부 아프리카 니양가의 므윈도(Mwindo), 이스라엘의 모세(Moses), 그리스의 오이디푸스(Oedipus)가 모두 그런 영웅이다. 그 가운데 케내깃도는 특히 므윈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 20) “장편서사시의 분포와 변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지식산업사, 1992)에서 케내깃도와 므윈도를 비교고찰하면서 그 점을 중요시했다.

겪은 (마)(바)(사)(아)까지 모두 갖추었을 것이다.²¹⁾

그러므로 <삼성본풀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자식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다시 명명하고 <삼성본풀이>는 그 전반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식대 주인공의 이름이 탐라국 시절에 어떠한지 알 수 없다. '쾌내깃도'나 '송곡성'은 후대의 이름이다. 주인공 이름은 모르니 <탐라국건국서사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삼성신화>에서 부모대의 이야기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대의 이야기를 평화스럽게 기록한 데 의문을 품 만한 단서가 있다. 수렵을 하는 남자와 농사를 짓는 여자는 생활방식과 식성이 달라 충돌한다고 본풀이에서 거듭 말하는데, 양쪽이 화합하는 모습만 전했다.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 사이에 대립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세 가문 후손들이 바라는 화합을 최초의 상태로 소급해서 나타내면서 탐라국 창건 세대가 벌인 더욱 격렬한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피로 얼룩진 영웅서사시는 버리고 목가적인 평화를 회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삼성본풀이> 전반만 발췌해 <삼성신화>로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삼성신화> 기록자들은 고대는 망각하고 중세의 사고방식으로 과거를 회고하면서, 탐라 주체성을 선양하는 대신에 중앙정부 지배하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에 만족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제주도를 떠나 중앙정부가 있는 곳으로 이주해서 생각이 달라졌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탐라국의 유민들은 중앙정부의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항거의 주역을 칭송하는 영웅서사시를 노래하고 영웅전설을 이야기한다.

후대 영웅서사시의 본보기인 <양이목사본>에서는 건국의 세 시조 '고이왕' · '양이왕' · '부이왕' 가운데 '양이왕'의 후손인 양이목사를 주인공으로 한다. 세 시조를 모두 '왕'이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

21) 그것은 桓雄과 熊女, 解慕漱와 柳花의 결연에 이어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檀君이나 朱蒙의 이야기를 전개한 것과 같다.

하다. 건국서사시에 있던 말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이목사는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파견한 수령이다. 왕의 후손이니 그런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이목사는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민의 편에 섰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수탈을 거부하고 항거하다가 금부도사와 싸워 죽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제사를 지내달라고 했다. 그것은 탐라국 건국서사시의 속편 패망편에 해당한다.

건국서사시의 구전 양상

탐라국 시대에도 <탐라국건국서사시>만 노래한 것은 아니다. 마을마다 신이 있어 그 본풀이를 노래했을 것이다. 마을 본풀이는 <탐라국건국서사시>와 유사한 내용을 단순화된 형태로 신의 격을 적절하게 낮추면서 불렀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러다가 <탐라국건국서사시>를 노래하는 곳이 없어지면서 마을 본풀이가 모두 대등하게 되었다. 마을 본풀이 가운데 <탐라국건국서사시>에 있던 내용을 많이 가져가 대작을 만든 곳도 있었다.

<김녕케내깃당본풀이>가 바로 그런 예이다. 그것이 전승되고 있는 구좌면 김녕리는 한가로운 농촌이며, 과거에도 탐라국 권력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단한 투지를 보인 영웅의 내력을 노래하는데, <탐라국건국서사시>를 옮겨다놓아 그렇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좌면 송당리의 <송당본향당본풀이>는 <김녕케내깃당본풀이>와 거의 같으면서 주인공이 신으로 좌정해서 관장하는 영역이 섬 전체로 확대되어 있다. 그것은 중앙권력의 모습이어서, <탐라국건국서사시>를 한층 충실하게 옮겼다고 생각된다.²²⁾

<송당본향당본풀이>는 468행이나 되지만, 그보다 훨씬 긴 <탐라국

22)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89면에서 구좌면 일대에서 탐라국을 세운 주도세력이 나타난 증거가 <김녕케내깃당본풀이>나 <송당본향당본풀이>에 남아 있다고 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추리이므로 취소한다.

건국서사시>가 전승되는 동안에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없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상상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김녕케내깃당본풀이>와 <송당본향당본풀이> 가운데 더 자세한 쪽을 가져다가 앞뒤를 연결시키면 <탐라국건국서사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다.

먼저 등장인물의 이름을 보자. 부모의 이름을 <천자또마누라본>과 <김녕케내깃당본풀이>에서는 ‘소천국’ · ‘백주또’ 라고 하고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는 ‘소천국’ · ‘백주할망’ 이라고 했다. 아들의 이름은 <김녕케내깃당본풀이>에서 ‘케내깃도’ 이고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는 ‘송곡성’ 이라고도 하고 ‘문곡성’ 이라고도 한다. 둘 가운데 ‘케내깃도’ 가 원형에 가깝고, ‘송곡성’ 은 뒤에 다시 붙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천국’ · ‘백주또’ · ‘케내깃도’ 가 원래의 이름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전승되는 동안에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자어가 아니며 네 음절 이상일 수 있는 것이 원래의 이름이고, 성은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자로 기록되어 문헌에 오른 국왕과 신하의 이름이 ‘儒李都羅’ 이고 ‘達未婁’ 이다.²³⁾ ‘양’ · ‘고’ · ‘부’ 의 성을 사용한 것은 유교문화를 받아들인 뒤의 일이다. 아들은 문헌에 오른 인물이 아니므로 성이 없다. ‘양’ · ‘고’ · ‘부’ 의 성을 근거로 유래를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이 바다를 건너와서 배필을 얻은 장면을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²⁴⁾

무쇠철갑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
“네가 귀신이나 생인이나?” 문즈를 하고 보니,
무쇠철갑 쏘꿍에서 소리가 나,

23) 자료를 주 53)에서 제시한다.

24)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 409면

“내가 귀신이 이런 디 올 수가 있습네까, 생인입네다.”

무쇠철갑을 올안 보니,

아들 애기 일곱을 난 곱따흔 백주할망이 있었다.

소천국은 백주할망 손을 심고,

“나광 굴이 살자.” 하여, 손당으로 올라갔다.

무쇠철갑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네가 귀신이나 산 사람이나?” 하고 물으니,

무쇠철갑 속에서 소리가 나,

“내가 귀신이면 이런 데 올 수 있겠습니까, 산 사람입니다.”

무쇠철갑을 열어보니,

아들 아기 일곱을 낳은 예쁜 백주할망이 있었다.

소천국은 백주할망 손을 잡고,

“나와 같이 살자”하고 송당으로 올라갔다.

백주또가 무쇠상자에 실려 바다를 건너 떠내려온 것을 소천국이 보고 구출해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백주또는 이미 아들 일곱을 낳아 데리고 왔다고 한 점이 특이하다. “왕대웃성”이라는 곳에서 솟아난 백주또가 처녀인 채 임신했기 때문에 부모가 노해서 무쇠상자에 실어 멀리 보냈다는 말이 그 앞에 있다. 그래서 지향 없이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이르러서 소천국을 만났다고 했다.

그렇지만 표류 도중에 낳은 아들이 일곱이나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백주또가 아이를 낳아 데리고 왔다는 것과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이 그렇게 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천국이 애썼다고 하면서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다.

둘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두 가지 생업에 종사한 대목을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²⁵⁾

25) 같은 책, 409-410면

부인님은 애길 질루고, 소천국은 산쟁이질을 흥였다.
 산툃괴기 궁작노리를 잡아다가 애길 맥여 살리고,
 소천국대감이 백주할망광 배합되난,
 딸만 애길 ㅁ뎡을 배었다.
 이 애기를 낳아 놓을 적에 백주할망이 말을 흥 되,
 “우리가 이 애기를 키우쟁 흥민,
 산쟁이질론 못사니, 농스를 집시다.”

부인님은 아기를 기르고, 소천국은 사냥질을 했다.
 산돼지고기 궁작노루를 잡아다가 아기를 먹여 살리고,
 소천국대감이 백주할망과 배필이 되니,
 딸만 아기를 여덟을 배었다.
 이 아기를 낳아놓을 적에 백주할망이 말을 하되,
 “우리가 이 아기를 키우려 하면,
 사냥질로는 못사니 농사를 지읍시다.”

그 때문에 싸우고 별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소천국과 백주또 두 사람 사이의 사사로운 분란이 아니고, 생업이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나타낸다. 지금도 제주도에서 곳을 하면서 당신을 식성에 따라 두 쪽으로 나누어, 고기를 먹지 않는 米食派와 고기를 먹어야 하는 肉食派, 일명 白神派와 黑神派의 신들을 각기 별도의 제물을 갖추어 따로 제사하는 풍속이 있다.²⁶⁾ 생업이 다른 집단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오랜 갈등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된다.

소천국의 아들 송곡성이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가 무례하게 굴었다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본처인 송곡성의 어머니를 버리고 첩으로 삼은 “오백서 딸애기”가 송곡성을 죽이는 대신에 무쇠상자에 넣어 바다에 떠내려 보내

26)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204-205면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748·820면

자고 해서, 아버지가 그 말을 따랐다. ‘영웅의 일생’은 그렇게 전개 되는 것이 상례이다. 어려서 버림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는 시련을 겪고 살아나야, 영웅이 영웅다울 수 있다. 아들이 버림받아 시련을 겪는 대목을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²⁷⁾

“저게 너의 아방이다” 하니,
 송곡성은 아방 독막 립에
 펫짝 돌 아지여 안을 적에,
 아바님 선대자 삼각수를 심어 둥겼다.
 석자 두치 곱방대도 이리저리 혼든다.
 소천국은 생각 할때
 “이 자식도 불효 자식이다.”
 당장 죽일라고 하다가
 오백서 딸애기 첨각시가
 말을 하되, “죽이지 말고,
 앞서서 보기 싫으니까, 무쇠철갑을 해서,
 바당데레 강드리쳐부는 게 좋쑤다.”
 무쇠철갑을 하여 들여,
 그 쏘굽에 왓혀
 동해용궁에 띄웠다.

“저게 너의 아방이다” 하니,
 송곡성은 아방 무릎에
 펫짝 매달려서 안길 적에,
 아바님 선 댓자 삼각수를 잡아당겼다.
 석자 두치 곱방대를 이리 저리 혼든다.
 소천국은 생각할 때
 “이 자식도 불효 자식이다.”

27) 같은 책, 411면

당장 죽이려고 하다가
 오백서 딸애기 침각시가
 말을 하되, “죽이지 말고,
 앞에서 보기 싫으니까, 무쇠철갑을 해서,
 바다에 가서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좋수다.”
 무쇠철갑을 해서,
 그 속에 들여얹혀,
 동해용궁에 띄웠다.

부모가 백주포를 무쇠상자에 넣어 멀리 떠내려보냈다는 것은 신라 건국신화의 하나인 脫解新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상통해, 신화의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무쇠상자의 화소가 거듭 사용되었다. 그런 시련을 겪은 주인공은 구출·양육자를 만나 살아나, 적대자를 물리치는 싸움에서 크게 이겨 용력을 과시하고,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영웅의 일생’에서 보이는 공식이다.

〈김녕케내깃당본풀이〉에서 괴내깃도가 강남천자국에 표착했다고 했다. 그 나라의 세 공주 가운데 막내의 구출을 받아 부마가 되었다. 외적이 침입해오자, 나가 싸워 엄청난 용맹을 가진 상대방 장수들을 무찔러 놀라운 공적을 이룩했다. 싸움 대목을 이렇게 노래했다.²⁸⁾

무췌투구 가보옷에 어닐도 비수금,
 나모활 보레활, 기치창금 내여주시고,
 억만대병을 내여주시니
 싸움 흥레 나간다.
 채암에 들어가서,
 머릿박 둘 돋은 장설 죽이고
 두번채 들어가서,
 머릿박 셋 돋은 장설 죽이고,

2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42면

식번채 들어가서,
머릿박 닛 돈은 장설 죽이니.

무쇠투구 갑옷에 언월도 비수금,
나무활 보례활, 기치창검 내어주시고,
억만대병을 내어주시니
싸움하러 나간다.
처음에 들어가서,
머리 둘 돈은 장수 죽이고
두번째 들어가서,
머리 셋 돈은 장수 죽이고,
세번째 들어가서,
머리 넷 돈은 장수 죽이니.

버림받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용맹을 떨치고 크게 인정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되돌아왔다. 무쇠상자에 실려 떠나갔던 바닷길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개신장군의 행진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협했다.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도망쳤다. 부보의 터전을 돌아온 아들이 차지했다. 그 대목은 〈송당본향당본풀이〉에서 이렇게 그렸다.²⁹⁾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제주를 입도했다.
소섬 동어귀로 들어올 때 방포를 났다.
굴왓칫풀애기가 나스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항여가니,
안종다리 밧종다리로 들어왔다.
마침, 정이 고보임제가 닳줄을 꺾어왔다.
닳을 심어올 때에 돛 전머릴 잡았다.

29) 진성기, 위의 책, 414-415면

츠 나록떡, 백시리, 백돌래, 차귀 당산메를 지여서
 접대를 햏자고 햏때에,
 “어느 누가 춤을 잘 추느냐?” 햏여,
 광선이를 불르고, 옥단이를 불르고,
 허무녀를 불르고, 방광을 쳤다.
 배가 한갓을 햏히지 못했다.
 청기·적기·백기·흑기·황기·오색기를 내돌리고,
 “올라오십시오.” 햏고 절을 햏 때에,
 한갓을 햏히게 되었다.
 안중다리 밧중다리로 들어올 때에
 소천국광 백주할망은 방포소릴 듣고,
 정하남에게 “이게 어떤 일이나?” 물을 때,
 “소천국 아드님 일곱 솔 적이 귀양보낸 아들이
 들어오십네다.” 햏니
 “왜, 일곱솔 적이 무쇠철갑에 담아 물에 띄운 주식이
 살아올 리가 있겠느냐?”
 문곡성은 부인을 거느리고
 일천뽕마 삼천군뽕을 거느리고
 하라영산을 올랐다.
 이때 어명은 겁난 웃손당으로 돌아나불고
 아방은 알손당 고부니뽕로 돌아나불고,
 둘췌 동싱은 삼방산으로 돌아나 삼방산신이 되었다.
 싯췌 동싱은 대정 광정당 뽕목 산신이 되었다.
 니체는 제주시내 뽕목 내왓당 산신이 되었다.
 다췌체는 짐녕 괴너깃또 산신이다.
 으췌체는 거루 명당또 산신이다.
 일곱체는 조천면 드리 송당 산신이다.
 으뽕체는 토산당 뽕목 산신위를 받았다...
 문곡성 위는 하라영산 뽕목왓 아서 알 동싱들크라
 “내가 여기로 왓아시니 녀이들 나를 우망이나 햏여라.”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제주에 入島했다.
 소섬 동쪽 어귀로 들어올 때 放砲를 놓았다.³⁰⁾
 굴밭집³¹⁾ 딸애기가 나서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여 가니.
 안종다리 밖종다리로³²⁾ 들어왔다.
 마침, 旌義 고배(?)³³⁾
 임자가 닳줄을 끌어왔다.
 닳줄을 잡아올 때에 돼지 온 마리를 잡았다.
 차나락떡, 쌀시루떡, 쌀도래떡, 차귀³⁴⁾ 堂山메를 지어서
 접대를 하자고 할 때에,
 “어느 누가 춤을 잘 추는가?” 하여,
 광선이를³⁵⁾ 부르고, 옥단이를 부르고,
 許巫女를 부르고, 징을 쳤다.
 배가 한 곳에서 잡히지 못했다.
 청기·적기·백기·흑기·황기·오색기를 내어달고,
 “올라오십시오” 하고 절을 할 때에,
 배가 한 곳에서 잡히게 되었다.
 안종달이 밖종달이로 들어올 때에
 소천국과 백주할망은 放砲 소리를 듣고,
 정하님에게³⁶⁾ “이게 어떤 일이나?” 물을 때
 “소천국 아드님 일곱살 적에 귀양보낸 아들이
 들어오십니다.” 하니,
 “왜, 일곱살 적에 무쇠철갑에 담아 물에 띄운 자식이

30) 진성기는 砲를 놓아 소리를 냈다. 이하의 자구 풀이에서 진성기의 주석을 계속 인용한다.

31) “굴왓ㄸ르”는 “서귀리 지명, 구령진 밭마루”이다.

32) 구좌면의 지명 內종다리와 外종다리이다.

33) 진성기가 의문으로 남겨 두었다.

34) 한경면 고산리의 옛 이름이다.

35) “춤바치 이름일 듯”하다.

36) 성이 정씨인 하인이다.

살아 올 리가 있겠느냐?"

문곡성은 부인을 거느리고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한라영산에 올랐다.

이때 어명은 겁나 옷송당으로³⁷⁾ 달아나버리고

아방은 아래송당 고부니마루로³⁸⁾ 달아나버리고

둘째 동생은 산방산으로 달아나 산방산신이 되었다.

셋째 동생은 대정 광정당³⁹⁾ 바람목 산신이 되었다.

넷째는 제주 시내 바람목 내왓당⁴⁰⁾ 산신이 되었다.

다섯째는 김녕 괴너깃또 산신이다.

여섯째는 거로 명당또⁴¹⁾ 산신이다.

일곱째는 조천면 다리⁴²⁾ 송당 산신이다.

여덟째는 토산당 바람목 산신위를 받았다...

문곡성은 한라영산 바람목에 앉아서 아래 동생들에게

"내가 여기 앉았으니 너희는 나를 받들거나 하여라."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 실감을 가중시켰다. 깃발을 흔들고 들어오는 광경을 생생하게 그렸다. 환영하는 이들이 있어, 징을 치고 춤을 춘다고 했다. 그런 장면은 가상 사건 현장의 묘사이면서 또한 굿을 하는 광경이다. 진군 맞이굿의 화려한 축제를 펼쳐 보였다. 춤 잘 추는 광선이, 옥단이와 함께 許巫女

37) 송당의 신 가운데 상위에 있는 신이 옷송당이다. 어머니가 송당의 신 가운데 상위의 신인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 노래가 <송당본향당본풀이>이니 아들 문곡성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인데, 아들은 그 자리를 버리고 한라산 산신이 되어 제주도 전체의 신이 되었다.

38) "고부라진 마루(송당리의 지명)"이다.

39) "안덕면 덕수리의 옛 堂名"이다.

40) "제주시 용담동 한넛가에 있었던 堂名"이다.

41) "제주시 거로동 明堂都"이다.

42) "조천면 교래리"이다.

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했다.

승리자가 된 문곡성은 한라영산을 차지해 제주도 전체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했다. 부모와 동생들은 스스로 도망치기도 하고 문곡성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각기 한 곳에 좌정했다. 금령의 피내깃도도 그 가운데 하나이며, 문곡성의 다섯째 아우라고 했다. 신들의 관계는 통치자들 사이의 관계이다. 탐라국 국왕이 지방의 통치자들을 거느리는 관계를 그렇게 나타냈다.

어려서 버림받은 아들이 큰 규모의 병마를 거느리고 돌아와 부모가 도망치게 하고, 아우들이 각기 한 곳을 차지하게 한 것은 정권교체와 임무 재배치를 뜻하는 내용이다. 정권교체가 부자의 싸움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대인은 생각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받들다가 정권을 물려받는 관계를 맺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 하고,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몰아냈다. 그런 일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덮어두려고 하고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이 노래에서는 힘이 있으면 영웅이고, 영웅이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중세가 시작된 뒤에는 없어진 고대의 가치관이다.

역사 이해를 위한 서사시의 기여

제주도에 사람이 살았던 자취를 말해주는 유물은 중기구석기 시대까지 소급된다. 토기는 기원전 3천년 이래의 것들이 발굴되었다.⁴³⁾ 원주민이 오랫동안 수렵생활을 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서사시는 세계 전체의 자료를 널리 비교해보면, 구석기시대를 지나 신석기시대에 처음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 형태인 '신앙서사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자료가 <서귀포본 향당본풀이>이다.

43) 이청규, 『제주도고고학연구』(학연문화사, 1995), 23-14, 67-107면

‘신앙서사시’를 노래하면서 사냥이 잘되기를 기원한 원시시대 수렵민이 제주도의 원주민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유형의 서사시가 본토에는 없는 것을 보아 본토민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유형의 서사시가 본토에도 있었으나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영웅서사시’에 나타난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논거를 보충해야 한다. ‘神人’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과 사람의 이중 성격을 가진 최초의 영웅이 본토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땅에서 솟았다고 한 것은 계통이 다르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三國志』나 『後漢書』에서 마한 서쪽 바다 큰 섬 ‘州胡’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언어가 韓과 같지 않다”고 하고, “가죽옷을 입고,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한 데 제주도 원주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⁴⁴⁾ 언어가 바다 건너 韓과 같지 않다는 것은 계통이 다르다는 말이다. 옷이나 생업에 관한 언급에서 수렵과 함께 목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을 州胡人이라고 일컬으며 그 유래를 찾는 작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오늘날은 北海島에 남아 있는 아이누인, 日本列島에 아이누인보다 먼저 살았던 ‘고루보구’인 등과의 관련을 가진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⁴⁵⁾

그러나 제주도의 원주민이 그 어느 쪽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서귀포본향당본풀이>를 아이누인의 서사시와 비교해보면, 수렵생활에서 이루어진 ‘신앙서사시’인 점은 같지만, 전개방식에서는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아이누인의 서사시는 의인화된 짐승의 일인칭서술로 진행되고, 수렵의 신이라고 할 것은 등장하지 않는

44) 『三國志』 권30 <魏志 東夷傳>의 원문을 들면 “又有州胡 在馬韓之西 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 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豬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中韓”이라고 했다.(『四部備要』 18, 北京: 中華書局, 1989, 363면)

45) 김태능, 『제주도사논고』(세기문화사, 1982)

宋錫範, 『濟州道古代文化의謎』(東京: 成甲書房, 1984)에서 한 작업이다.

다. 유사한 형태가 변한 결과라고 하기보다 계통이 다르다고 하는 편이 타당하다.

영웅이 땅에서 솟아났다고 한 전승이 다른 데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원주민의 계통을 밝혀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럴지 의문이다. 그런 전승이 제주도에서처럼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발견되지 않는다. 멀리 가면 비슷한 것이 있으나, 뜻하는 바가 같지 않다.⁴⁶⁾ 영웅이 땅에서 솟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데 대한 반론으로 마련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창세서사시’는 천지창조의 유래를 알고 자연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제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부른,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의 서사시이다. 해와 달을 조절해 천체의 이변을 해결한 농사가 잘되게 한 것을 뜻하므로 수렵민과 다른 농경민이 등장하면서 서사시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본토의 흔히 볼 수 있는 설정이다.

‘창세서사시’는 제주도와 본토 양쪽에 다 있으면서 기본설정이 서로 같다.⁴⁷⁾ 제주도에서는 하늘에서 하강한 천지왕의 두 아들 대별왕과 소별왕이, 본토에서는 소종래가 설명되어 있지 않은 석가와 미륵이 이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그것은 본토에서는 후대적 변모를 겪은 ‘창세서사시’의 고형을 제주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창세서사시’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는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제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집단을 이끌었다. 고인돌이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의 고인돌 가운데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

46) Bronislaw Malinowski, *Argonauts of Western Pacific* (New York: E. P. Dutton, 1922)에서 보고한 서태평양 도서지방의 신화에서는 인류의 시조가 땅에서 솟았다고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은 원래 땅속에서 살고 있다가 땅위로 올라왔다는 뜻이다.

4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연구』(태학사, 1999)에서 양쪽의 자료를 자세하게 비교해 고찰했다.

있는 支石이 열개 이상인 거대한 고인돌이 특이하다고 한다.⁴⁸⁾ 대별왕과 소별왕이 일월의 이변을 해결하는 능력을 겨루면서 싸우는 ‘창세서사시’를 전승하는 집단의 강력한 통치자들이 그런 고인돌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과 이주민이 결합은 ‘영웅서사시’가 창조된 고대에 이루어졌다. 수렵민과 농경민이 갈등을 겪으면서 결합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전환이 두 단계로 전개된 ‘영웅서사시’에 나타나 있다. 사냥을 하는 남자와 농사를 짓는 여자가 혼인해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제1세대의 변화를 거쳐, 둘 사이에서 태어난 제2세대의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한 것이 고대 국가의 출현 과정이다.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 집단이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⁴⁹⁾ “사냥을 해서, 가족을 입고 고기를 먹었다”고 한 것은 원주민의 생활이지 이주민의 생활일 수 없다. 위대한 인물은 땅에서 솟아났다는 것은 본토에는 없는 전승이다. “오곡의 씨앗”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와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 쪽이 이주민이다.

외래인의 등장으로 수렵시대에서 농경시대로 이행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면서 목축에 관한 기록은 엇갈린다. ‘삼성신화’에서는 “망아지, 송아지”를 오곡의 씨앗과 함께 밖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州胡 사람들은 “소와 돼지 기르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양쪽에서 말한 바가 상치되지 않게 이해하려면, 이미 하고 있던 수렵의 연장인 목축을 농사에 이용하는 목축이게 한 것은 이주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시에서는 사냥을 하는 남편과 농사를 짓는 아내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남편이 농우를 잡아먹자 폭발했다고 했다. 사냥만

48) 이청규, 위의 책, 277-278면

49) 신용하, “탐라국의 형성과 초기 민족이동”, 『한국민족의 형성과 민족사회학』(지식산업사, 2001)에서 그런 주장을 폈다.

생업으로 하고 목축은 겸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주민의 전통을 계속이었음을 말해준다.

이주민이 어디서 왔는지 ‘창세서사시’에서는 말이 없다가, ‘영웅서사시’에서는 멀리 바다 건너 왔다고 하고,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할 때에는 ‘강남천자국’, ‘일본’, ‘벽랑국’ 등을 들었다. 나타나 있는 말만 들어 판단한다면, ‘창세서사시’를 가져온 집단과 ‘영웅서사시’에 등장하는 이주민 집단은 서로 다르고, 뒤쪽만 이주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으나, 그럴 수 없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다툼으로 표현된 이주민 내부의 문제보다 원주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되는 시기에 이르지 출처를 새삼스럽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주민은 어디서 왔던가 하는 의문을 자료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일본’이라고 하거나 ‘강남천자국’이나 ‘벽랑국’을 찾아 해결할 수는 없다. ‘창세서사시’의 동질성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이주민은 본토민이었다. 제주도의 원주민은 본토민과 다르지만, 이주민은 본토민이어서 제주도민이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야 제주도말이 본토말과 다르면서 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본토민 가운데 부여·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주했다고 할 수 있다.⁵⁰⁾ 중국에 사신으로 간 사람이 자기네는 북부여의 자손으로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제주도로 갔다고 한 것이 좋은 증거이다.⁵¹⁾ 제주시 용담동 고분에서 발굴된 석곽묘 양식은 압록강변에 남아 있는 1세기에서 3세기의 고구려 무덤과 일치한다고 한다.⁵²⁾

서사시는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문자 기록의 도움을 받지 못해 자기네 출발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지니지 못하고, 백제나 신라보다 더욱 크고 훌륭한 나라에서 출발해 바다를 건너 멀리 왔다는 기억만 남은 것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탐라국이 본토에 북

50) 박종성, 위의 책, 301-338면에서 이에 관해 자세한 논의를 폈다. 여기서 재론하는 부분은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다.

51) 앞 대목까지 포함한 자료 전문을 주 44)에서 제시한다.

52) 이청규, 위의 책, 254-255면

속된 뒤에는 본토민에 대한 반감 때문에, 본토와는 다른 쪽에 있는 '강남천자국' 이니 '벽랑국' 이니 하는 가상의 나라를 들었을 수 있다.

'일본' 은 가상의 나라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일본까지 갔다가 제주도로 이주한 내력을 말할 수 있다. 탐라국이 한 때 일본과 가까운 관계를 가진 사실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 <삼성신화>를 기록에 올릴 때 세 시조의 배필이 되는 여자들이 본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일본을 들었을 수도 있다.

'영웅서사시' 에 등장하는 제1세대 남녀 주인공은 모두 땅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신을 높이기만 하다가 사람을 높여야 하는 시기에 이르자, 자연의 '재앙'을 해결하는 주술사 대신에 사회를 움직이는 통치자가 필요하게 되면서, 땅에서 솟아나 자연을 거역하는 힘을 가져야 집단 내외의 적대자를 누르고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그런데 위대한 통치자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한 것은 원주민의 사고형태였다. 이주민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것을 원주민은 땅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원주민이 그것을 상대방 이주민에도 적용해, 수렵에 종사하는 원주민 쪽의 남성뿐만 아니라 농경을 하는 이주민 쪽의 여성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했다. '창세서사시' 시대에는 이주민이 위세가 대단해 위축되었던 선주민이 자기 쪽의 사고형태를 통일헌법으로 삼아 양쪽을 합칠 수 있게 성장했다.

땅에서 솟았다고 하는 것을 절묘한 선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여럿일 수 없다. 한쪽이 진실되면 다른 쪽은 거짓이다. 그러나 땅은 넓게 퍼져 있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땅에서 솟은 사람은 많을 수 있고, 어디서 솟았든지 서로 대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대등한 결합을 보장하는 최상의 방안이다. 그런 통일헌법이 대등한 결합을 보장했다. <삼성신화>에서 원주민 쪽만 땅에서 솟았다고 한 것은 부당한 변조이다. 원주민은 움츠러들거나 없어지고 이주민만 득세하고 번성해서 오늘에 이르렀으리라는 추측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결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주민 남자와 이주민은 여자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은 남자만이 아니고 이주민은 여자만이 아닌데, 부당한 선택을 해서 대등한 결합의 원칙을 어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대까지 제주도에서는 수렵이 남자의 일이고, 농사는 여자의 일이다. 원주민 쪽에서는 남자가, 이주민 쪽에서는 여자가 각기 고유한 전통을 이어,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대표자다운 대표자를 선발했다.

둘의 결혼에서 다음 시대를 이끌 인물, ‘영웅서사시’ 제2세대의 주인공이 태어났다. 그러나 부모 시대에서 자식 시대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약적인 발전에 따르는 진통이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상자에 넣어 내다버리고, 자식은 어렵게 살아나 자기 삶을 개척했다. 자식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되어 돌아오자 부모는 도망쳐 시대변화가 공인되었다.

그것은 영웅이 어려서 겪은 시련과 투쟁을 말하는 공통된 화소이다.⁵³⁾ 세계 도처에서 같은 전승이 발견된다. 제주도의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만, 버림받은 아이가 해상 어느 ‘곳에서’ 구출되고 바다를 건너다니는 적대자들과 싸워 용맹을 크게 떨쳤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제주도는 섬이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 말 것은 아니다. 제주도 서사시의 여러 유형 가운데 제2세대의 활약을 다룬 ‘영웅서사시’에만 해상활동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 유형이 이루어질 시기에 그런 활동이 특별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사냥, 사냥과 농사의 결합이 각기 중요시되던 단계를 지나 해상활동의 시대에 이르면서 서사시가 달라졌다. 해상활동이 어업을 말한 것은 아니다.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에서 어업은 사냥과 농사 못지않

53)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이야기』(문예출판사, 1992)에서 이에 대해 고찰하고, “장편서사시의 분포와 변천”,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지식산업사, 1992)에서 제주도의 사례를 아프리카 〈므원도〉 서사시와 비교했다.

게 긴요하므로 특별히 다룰 만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다로 나가 적대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해상활동의 내용이다. 생업의 확장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고, 군사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해양활동에서 입증된 힘은 제주도 안의 지배질서를 바꾸기에 충분했음을 말해준다고 보아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고대국가가 등장하는 시기의 변화이다. 새 시대의 주역이 해양활동을 통해 고대국가를 창건하는 데 필요한 권력을 획득하고, 탐라국을 창건했다. 해양세력은 수렵민이 차지하고 있던 권력을 빼앗고, 수렵민과 농경민의 갈등을 해결해, 섬 전체를 통합하는 국가를 창건했다. 사제자는 권력을 잃고 굿을 하는 일을 맡아, 자연을 움직이는 힘보다 적대자와 싸워 이기는 힘이 더욱 중요시되는, 지배자 찬양의 건국서사시를 노래하게 했다.

해양활동의 상대방에는 본토의 여러 세력도 포함되었겠는데 서사시에서는 그 점에 관해서는 말이 없고, 남쪽의 여러 섬을 왕래한 경험을 암시하기만 했다. 본토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긴 시기에 와서 변한 내용이 아닌가 한다. 실제 상황에서는 탐라국이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백제, 신라, 일본, 중국 등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왕래하면서 교역을 했다. 상대방에 비해 모자라지 않는 정치적 역량, 군사력, 항해능력 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탐라국은 고대국가로 머물고 중세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 문자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역사를 서술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중세국가들끼리의 외교관행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실행하는 수준에는 이르렀다. 『舊唐書』에 전하는 다음과 같은 기사는 탐라국의 내부 사정과 국제적인 위치에 관해 많은 자료를 제공해준다. 필요한 연대를 괄호 안에 넣는다.

龍朔(661-663) 초년에 儋羅라는 곳의 王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 입조 했다. 그 나라는 신라 武州 남쪽 섬에 있다. 풍속이 절박하고 누추하다.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이다. 여름에는 풀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동굴을 집으로 삼

는다. 땅에서 오곡이 나지만, 소를 사용해 경작할 줄 모른다. 쇠스랑으로 땅을 간다. 처음에는 백제에 소속되었는데, 麟德 연중(664-665)에 그 추장이 입조해 帝를 따라 太山에 이르렀다. 그 뒤에 신라에 소속되었다. 開元 1년(723)에 또한 達未婁와 達婁 두 部の 수령이 조공하러 왔다. 달미루는 스스로 북부여의 후예라고 하고, 고구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자 남은 사람들이 那河를 건너와서 그곳에서 산다고 했다.⁵⁴⁾

‘탐라’를 ‘儋羅’ (담라)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 그 말이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이다. 그 통치자가 당나라의 책봉을 받아 王이라고 했으니, 백제나 신라와 대등한 독립국이다. 천자의 책봉을 받은 나라는 대등한 독립국이라는 것이 동아시아 책봉체제가 보장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중세문명에서도 함께 이룩된 책봉체제는 그런 공통점을 가졌다.⁵⁵⁾ 탐라가 백제나 신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책봉체제와는 다른 차원의 부차적인 사항이다.⁵⁶⁾ 힘의 우열 때문에 양자간의 평등은 깨어졌어도 열세인 쪽이 책봉국의 지위를 잃지 않으면 독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공

54) 『新唐書』 권220 「東夷傳 儋羅」. 원문은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 衣犬豕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 新羅 開元十一年 又有達未婁 達婁 二部首領來貢 達未婁自言北夫餘之裔 高麗滅其國 遺人渡那河 因居之”라고 했다.(『四部備要』 27, 北京: 中華書局, 1989, 1682면)

55) 책봉체제의 의의에 대해서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지식산업사, 1999)의 “책봉체제”에서 고찰했다.

56) 『삼국사기』 백제본기 4 동성왕 20년(498)조에서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라고 하고,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662)조에서 “耽羅國主 佐平徒冬音律 一作津 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平爲官號 至是 降爲屬國”이라고 한 것을 보면, 탐라의 통치자는 백제의 간섭을 받고 ‘좌평’이라는 관직을 얻었으며, 신라에서도 그 비슷한 관직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으로 책봉된 통치자에게 대등한 위치에 있는 ‘왕’이 하위의 관직을 준 것은 국제사회에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인되었다.⁵⁷⁾

위에서 든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탐라에서 목축을 많이 하고 농업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고, 농업기술은 발달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는 농업기술을 전수한 이주민의 구실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탐라국이 이웃나라와 외교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민이 전래한 능력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미루’와 ‘달구’에 대한 기록이 그 점을 입증해준다.

그 두 사람은 자기 部의 수령이면서 사신이 되어 갔다. 나라 안에 독자적인 세력이 있고, 아마도 지위를 세습했을 듯한 그 수령들이 자기네의 존재를 당나라에 알렸다. 그렇지만 수령이라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권위나 무력으로 지배자 노릇을 한 것만은 아니고, 사신의 임무를 감당할 만한 학식을 갖추었다. 조상이 북부여에서 왔다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부의 수령 노릇을 하면서 자기네의 내력을 기록에 근거를 두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상당한 정도로 중세화한 지식인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탐라국의 건국서사시는 그런 나라를 세운 내력을 말하고 있다. 재래의 수렵민과 외래의 농경민이 결합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킨 토대 위에서 안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밖으로 주권을 지키는 영웅이 해상활동을 통해 힘을 키워 작지만 당당한 나라를 세운 위업을 나타냈다. 재래의 수렵민과 본토에서 이주한 농경민이 결합된 제주도민이 이룩한 역사를 증언했다.

탐라국이 망하자 건국서사시는 해체되고 마을마다의 당본풀이에 흡수되었다. 당본풀이 가운데 탐라국 유민의 항거 의지를 보여주는 후대의 ‘영웅서사시’도 있다. 당본풀이가 아닌 일반본풀이 ‘범인서사시’가 다수 이루어져, ‘영웅서사시’의 유산을 이으면서 중세 이후의

57) 琉球는 17세기 이래로 일본의 간섭을 받는 ‘附庸國’이 되었어도 淸나라의 책봉을 계속 받았으므로 독립국으로 인정되었다. 백제나 신라는 일본이 유구에게 한 것처럼 실질적인 간섭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나타냈다.

마무리

문헌에 기록된 건국신화가 오늘날까지 구전되고 있는 서사무가로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⁵⁸⁾ 그 둘의 연관관계 파악이 문학사 이해의 전반적인 과제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다.⁵⁹⁾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가능성을 말하는 데 그치고,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본토의 서사무가는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찰을 할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서사무가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원래의 모습을 더 많이 지니고 있어, 본토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을 가능하게 했다. 탐라국의 내력에 대한 기록은 동시대에 공존하던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빈약하지만, 구비전승자료를 근거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건국서사시의 모습을 오늘날까지 구전되는 서사무가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탐라국에서 처음으로 성사했다. 서사시와 역사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 의의가 있는 연구를 했다고 자부한다.

제주도에서 구전되는 서사무가는 몇 단계에 걸쳐 이룩된 창조물이다. '신앙서사시' <서귀포본향당본풀이>는 원주민의 수렵생활에서 긴요한 구실을 한 원시서사시이다. '창세서사시' <천지왕본풀이>는 원시에서 고대로의 이행기에 본토에서 이주한 농경민의 전승이다. 그 다음 단계의 '영웅서사시'는 탐라국의 건국으로 고대가 시작된 과정을 말해준다. '범인서사시'는 중세에 이룩되었다.

<삼성신화>는 '영웅서사시'인 <삼성본풀이>의 기록이다. 제주도 땅에서 솟아난 '양을라' · '고을라' · '부을라'와 다른 곳에서 제주도에

58)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문학사상사, 1980)에서 고구려 건국신화가 <당금애기>로 이어진다고 한 데서 그런 착상을 처음 구체화했다.

59)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제3판 1994)에서 그렇게 했다.

건너온 여성들이 부부가 되어 수렵과 농경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결합을 말해준다. 구전에는 여성 쪽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한 것을 그렇게 고쳤다. '양' · '고' · '부'라는 성을 붙인 것도 후대의 개작이다.

〈삼성본풀이〉는 〈탐라국건국서사시〉의 전반부에 해당한다. 구전되기만 하는 후반부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미움을 사서 버림받아 무쇠상자에 실려 바다를 표류하게 된 시련을 이겨내고 커다란 전공을 세우고 귀환해 도망친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권을 장악했다. 탐라국의 통치자를 찬양하던 〈탐라국건국서사시〉를 나라가 망하자 〈김녕궐내깃당본풀이〉나 〈송당본향당본풀이〉 같은 당본풀이에서 가져가서 전승했다.

탐라국의 건국이 제주도 역사의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고, 어떤 의의를 가졌는지 건국서사시가 잘 말해준다. 수렵민인 원주민과 농경민인 이주민이 원주민의 주도하에 서로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결합한 것이 발전의 기초였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상활동을 통해 군사력을 기른 세력이 대내적인 통합을 성취하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가를 창건했다. 탐라는 백제, 신라, 일본 등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그 어느 쪽과도 당당하게 겨루고 대등하게 교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한다. 탐라국 시대 이후에도 제주도는 이른 시기의 이주민을 매개로 해서 본토의 역사와 하나를 이루면서, 원주민이 끼친 전통이나 원주민과 이주민의 결합 방식에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어 독립된 영역을 이루었다. 본토의 왕국에 복속되어 한국의 일부가 되고서도 계속 천대받은 것이 그 때문이다. 천대의 역사 또한 서사시나 설화로 표현되어 본토와는 다른 문학유산을 이루었다.

이제 제주도의 명예롭지 못한 과거는 덮어두고 본토에 더욱 철저하게 동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지 말자. 독자성을 근거로 삼아 주체성을 재확립하는 것이 제주도민의 명예를 높이면서 역사를 다원체로 인식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길이다. 차별받고 있는 소수집단의

역사를 다른 어느 나라에서 문제삼는 데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다원체의 역사를 이루는 상이한 유산은 국가, 문명권, 세계 전체의 차원에서 모두 획일성을 거부하는 논거로서 소중한 의의를 가진다.

The founding Epic of Tamra Kingdom

Cho Dongil

Abstracts

The written records about Tamra kingdom of the Jeju island are too scarce to reconstruct its history. We can use oral tradition to fill up the blank. The shaman epic, *ponphuri*, offers the best evidence to know how the kingdom was founded.

Different types of the shaman epic was originated from different ages. The laudatory epic was the product of the primitive hunters. The creation epic was used to demonstrate priest rulers' ability in the transitional stage from the primitive to ancient ages. The heroic epic testified the founding of ancient kingdom.

The records in *Koryeosa*, History of *Koryeo Dynasty*, about three forefathers of Tamra are partial translation of the founding epic. The oral version transmitted until now are different from it in two points. Not only three male forefathers but also their bridges sprang out from the earth. The son abandoned by parents overcame difficulties and returned triumphantly.

The marriage of the first generation explained the collaboration of the native hunters and the emigrant farmers. That made the economic background to develop society. The next generation's struggle provided the political force to build a kingdom. The founding epic of Tamra kingdom was composed of these two parts.

After the collapse of the kingdom, its founding epic was scattered and transmitted as shaman epics telling the lives of village gods. Among them, two versions of the *Kujwa* subcounty in the northeast part of *Jeju* island maintain particularly rich heritage.